



‘새 둥지’ 찾은 김하성, 역전 결승 쓰리런

K리그 선수들 “ACL, 우승이 목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울산·포항·서울·강원 4팀
미디어테이서 결의 다져

“목표는 여기 있는 선수들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우승하고 싶고, 우승이 목표입니다.” (FC서울 김진수)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포항 스틸러스·FC서울·강원FC 선수들은 리그 순위 경쟁과 아시아 무대에서의 경쟁력 입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아시아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ACL)에 출전하는 네 팀의 대표 선수들은 4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미디어테이서 각자의 목표와 포부를 밝혔다.

울산의 김영권은 “작년에는 팀 선수들이 리그에 조금 더 집중하다 보니 ACL에서 부진한 성적이 나온 듯하다”며 “작년보다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김진수는 “FC서울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리그 스테이지를 통과하고, 무엇보다 서울 팬들이 원하는 결과를 매 경기 가져오는 게 개인적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한국 선수들이 뛰고 있는 해외팀들과의 경기가 기대된다며

“꼭 이겨서 (그 선수들이 K리그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고 웃어 보였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 (ACLE) 무대에 도전하는 강원FC의 이유현도 각오가 남다르다.

이유현은 “우리 철학을 가감 없이 보이겠다. 우리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 평가받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ACL을 통해서 강원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포항의 김인성은 올해 ACL에 출전하는 나머지 세 팀 선수와 달리 AFC 챔피언스리그2 (ACL2)에서 뛰게 됐다.

그는 “ACL은 정보가 많이 없어서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K리그 경기보다 어렵다”면서도 “무조건 예선은 통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ACLE 리그 스테이지 1차전은 오는 16일 강원과 상하이 선화의 맞대결로 시작된다. 같은 날 서울은 일본 마치다 젤비아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고, 다음 날인 17일에는 울산이 홈에서 중국 청두 룽청과 맞선다. ACL2 1차전은 18일에 펼쳐지며, 포항이 태국 BG 뽀뽀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4일 (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MLB 시카고 컵스와 방문 경기서 역전 3점 홈런을 터트린 김하성.

연합뉴스

애틀랜타 이적 후 첫 홈런
7회 홈런 후 호수비까지…
소속팀 유격수 문제 해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새 둥지를 튼 김하성 (29)이 이적 후 두 경기 만에 첫 홈런을 쏘아 올렸다.

김하성은 4일 (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시카고 컵스와 방문 경기서 팀이 0-1로 끌려가던 7회 역전 3점 홈런을 터트렸다.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하성은 2회 포수 파울플라이, 5회 삼진으로 물러난 뒤 7회 2사 1, 3루에서 세 번째 타석을 맞이했다.

그는 드루 포머랜츠의 초구 직구를 공략, 시속 108.5마일 (약 174.6 km)의 총알 같은 타구로 391피트 (119.2m)를 날렸다. 김하성의 시즌 3호 홈런이다.

지난 2일 탬파베이 레이스를 떠나 애틀랜타로 전적 트레이드된 김하성은 이적 후 첫 경기였던 3일

경기에서 4타수 2안타로 활약했다. 그리고 이날 역전 3점 홈런포를 가동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올 시즌 기용한 유격수들의 극심한 타격 부진으로 고심한 끝에 김하성을 영입한 애틀랜타는 곧바로 효과를 누렸다.

MLB닷컴에 따르면, 애틀랜타 유격수가 홈런을 때린 건 올 시즌 140경기 만에 처음이다.

김하성의 한 방은 팀 타선을 깨웠다. 애틀랜타는 엘리 화이트의 단타와 도루, 나초 알베라스 주니어의 적시타를 묶어 7회에만 4점을 내 4-1로 앞서갔다. 8회에는 오지 알비스가 켄지 솔로포를 터트렸다.

김하성은 9회 마지막 타석에서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김하성은 4타수 1안타 1홈런 3타점 1득점으로 활약해 팀의 5-1 승

리에 앞장섰다. 김하성이 그린 포물선은 역전 결승 홈런이 됐다.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228 (91타수 21안타)이다.

김하성은 수비에서도 빛났다. 7회말 1사 후 카를로스 산타나의 뜬공 때 좌익수 화이트가 콜 플레이를 듣지 못하고 달려오는 가운데서도 날렵하게 피하면서 공을 잡

연합뉴스

야구선수협 “선수들 SNS 테러 피해 심각”

가족 비방 메시지도… “법적 강경 대응”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선수들이 형사 범죄 수준에 이르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해 선수를 대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수협회는 4일 “지난 달 20~24일, 국내 프로야구 선수를 대상으로 SNS 피해 실태 설문조사를 했고, 163명이 참여했다”며 “현재 상황을 방지하려면 SNS 악용 사례는 더욱 고도화되고 광범위하게 확산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발생하는 비상식적인 악성 사례들을 ‘SNS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협회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

라고 천명했다.

설문 결과 SNS 피해는 해당 선수의 팀이 패하거나, 선수가 실책을 범한 직후 (56%)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정 상황을 가리지 않고 시즌 내내 이어진다는 응답도 15%에 달했다.

피해 대상은 선수 본인 (49%), 부모 (31%), 배우자 또는 여자친구 (13%) 순이었다.

가해 유형은 경기력 비난 (39%), 가족이나 지인 비방 (29%) 등이었다.

선수협회는 “살해 협박, 성희롱, 고인 (가족) 모독, 스토킹·주거 침입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선수를 대리해 법적 절차를 밟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남자 하키, ‘최강’ 인도와 무승부 인도와 경기에서 득점 후 기뻐하는 한국 선수단. 한국은 3일 (현지시간) 인도 라즈기르에서 열린 제12회 남자하키 아시아컵 대회에서 전통적인 강호 인도와 4강 결선 리그 1차전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해 결승 진출의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연합뉴스

PSG 이강인·뮌헨 김민재, UCL 명단 포함

〈유럽 챔피언스 리그〉

오는 11월 ‘코리안 더비’ 예고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PSG)과 중앙수비수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가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참가 선수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려 두 시즌 연속 ‘코리안 더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UEFA는 4일 (한국시간) 2025-2026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UCL) 리그 패이즈에 참가하는 36개 팀이 등록한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시즌 UCL 챔피언인 프랑스 PSG는 이강인을 포함한 25명의 선수를 등록했다. 독일 명가 뮌헨은 23명의 선수를 제출했는데 김민재도 한자리를 꿰찼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대전 추첨 결과 PSG는 홈에서 뮌헨을 비롯해 아탈란타 (이탈리아), 토트넘 홋스퍼, 뉴캐슬 (이상 잉글랜드)을 상대하게 됐다. 원정에서는 FC바르셀로나 (스페인), 레버쿠젠 (독일), 스포르팅 (포르투갈), 아틀레틱 빌바오 (스페인)와 겨룬다.

뮌헨은 홈에서 첼시 (잉글랜드), 클럽브 브뤼허 (벨기에), 스포르팅 루아얄 위니옹 생질루아즈 (벨기에)와 대결한다. 원정에서는 PSG, 아스날 (잉글랜드), PSV 에인트호번 (네덜란드), 파포스FC (키프로스)를 만난다.

PSG와 뮌헨의 대결은 오는 11월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4차전에서 이뤄진다.

연합뉴스

기획보증보험 2억원 가입 업체(전업체)

라오스 5일

비엔타옌+방비엥

추석연휴에 떠나는 힐링여행 제주직항전세기

출발일 10월 8일 ~ 10월 12일 3박5일

1인 1,390,000원

※ 항공·국토교통부 허가에 따라 운영되며,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포함사항 : 국제 항공료(TAX+유류할증료), 숙박료(2인1실), 식사/운송/입장료, 가이드/기사 비용, 여행자보험료

불포함사항 : 카타카인비용, 현지선택관광, 부가세(VAT), 기사-카이드보장료 \$30

예약문의

열린여행리더클럽연합사

여행사 711-0009 이제이투어 748-8155 늘푸른여행사 726-3344 코믹여행사 724-0161

문주란여행사 748-0304 에프엠여행사 702-1950 가자일영투어 727-2277

협찬 : 제주항공

라오스 골프 54홀

1인 1,850,000원